

고흥 해창만 수상태양광사업, 민원에 '발목'

전국 최초 주민참여형 추진 주목
일부 '불법허가' '송어 폐죽음' 반대
업체, 수년간 270억원 피해 호소
지역민 "잘못된 정보 갈등 부추겨"



고흥 해창만 일대에 추진중인 수상태양광시설.

전국 최초 주민 참여형으로 눈길을 끌었던 고흥 해창만 간척지 담수호 수상태양광사업이 일부 주민들의 근거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부딪쳐 해당업체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하소연을 하고 나섰다.

태양광업체인 고흥신에너지㈜는 민선6기인 지난 2017년 10월 최초 사업제안서를 접수하고 2018년 3월 14일 고흥군의회 투자유치 동의를 거쳐 본격 추진에 나섰다.

민선7기 들어 포두면 이장단 및 대책위원회가 주민 찬반여론조사를 실시 1,783 가구 중 찬성 87.3%, 반대 12.7%의 결과를 토대로 고흥군은 사업제안서 전국 공모 공고 후 고흥신에너지㈜를 최종 선정했다.

이후 고흥신에너지㈜는 승인면적 87만7,464㎡에 총사업비 1,800억 원을 투입해 95MW 규모의 수상 태양광시설을 추진중이다. 문제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시작되면서부터다.

이와 관련 반대대책위원회 A위원장은 "당초 고흥군의 개발행위 허가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고 허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면서 "또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하고 1년간 모니터링 후 이상이 없을 때 2단계 공사가 가능한데 모니터링 중에 물고기 폐사해 민원을 제기했다. 처음 사업자가 약

속했던 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물고기 폐사와 관련, 독성물질 조사의혹 등에 대한 본지 기자의 질문엔 A위원장이 명쾌한 답을 하지 않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고흥신에너지㈜ 관계자는 "전혀 근거 없는 무엇인가를 노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송어폐죽음 원인은 반드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 반대 측이 내놓은 강원대 수질검사 수치로 본다면 해창만 물고기는 하나도 살아날 수가 없다"면서 "강원대에 의뢰한 검사만 문제가 있는 걸로 나왔다. 회사는 전혀 세제를 사용하지 않았고 균청 등 4개 기관이 검사했으나 기준치이하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매년 가을 때면 물고기가 폐사한다. 이곳 농민들이 하는 말이다. 최근 군수당선자 인수 위원회에서 민원과 관련 설명을 요구해 해명했다"면서 "이에 인수위가 서로 원만히 협상할 것을 권유했다. 수년간 반대에 부딪쳐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 회사가 지금까지 270억 원 가량의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대책위와)협의할 사항이 아니다. 몇 개 마을을 지나 송전선로는 지하 2m 깊이 들어가 전파가 제로로 나온다. 전자파 발생민원으로 1년 넘게 공사 중지가 길어지면서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면서 "은갓 관계없는 문제까지 제기하는 바람에 회사 피해가 너무 커 더 이상 이런 악성민원을 방지할

수 없어 회사 차원에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포두미래발전포럼 회원 B씨는 고흥군청 자유게시판에 "해창만 수상태양광발전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세제를 사용해 송어폐사 죽었다' 하고 가짜 세제통까지 언론에 제보해 의혹을 부추겼다"고 밝혔다.

이와 "(대책위가 주민들을 선동해)송전선로가 지나가는 포두면 신흥, 삼정, 장사, 상백, 하백, 봉림마을 주민들에게 '지중 2m 깊이로 지나가는 선로에서 전파가 나와 주민들은 암과 백혈병에 걸려 생명을 위협받게 된다. 그래서 목숨 걸고 막아야 한다' 고 말했다"면서 물고기 폐사

와 관련 세제통 독성물질 조작 의혹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해창만 담수호에서 매주 낚시를 한다는 네이버 배스포인트 카페 한 운영자는 "해창만 일대를 드론촬영하면서 찍은 영상과 (자신 이)지켜본 상황을 설명하겠다"면서 "주민이 최초 발견했다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해창만 어느 곳에서도 낚시를 하면서 물고기 사체는 발견하지 못했다. 물고기가 독성물질에 폐사하면 여기저기 수초사이에 걸려 있어야 하는데 한 마리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유튜브를 통해 밝혔다.

폐사물고기 최초 발견자는 반대대책위 A위원장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송어때 폐사는 해창만 수상태양광사업 추진 과정에 알려진 대표적 사안으로 물고기폐사 독성물질 의혹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포두면 주민 C씨는 "젊은 층으로 구성된 대어섯 명의 사람들이 민선7기 들어서면서 사사건건 지난 4년간 지방선거 전날까지 군청 앞 집회 등 왜곡된 정보로 주민들을 선동해 '고흥군이 허가를 내줬다'고 언급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아 온 악의적 민원인은 현재 모 정당 포두면 협의회장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수상태양광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몇몇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로 포두면 주민들을 극심한 갈등으로 몰아갔다.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고흥 해창만 수상태양광공사 준공 예정은 오는 9월이며 당초 계획대로라면 포두면 투자주민들은 연간 17억 원의 수익배당, 마을발전기금 9억원 등을 받는다.

완공 후 기대효과는 2020년 기준 고흥군 재정액 536억 원, 주민참여 투자수익 348억 원, 포두면민을 위한 발전기금 등 243억 원, 지역업체 장비인력 소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799억 원이다. /고흥=진중언 기자

곡성, 압록·연반 보건진료소 리모델링 "끝"

노후 공공시설 에너지효율 향상

곡성군이 최근 압록 보건진료소와 연반 보건진료소 정비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곡성군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공모 사업에 응모해 압록 보건진료소와 연반 보건진료소가 최종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 보건진료소들은 준공된 지 10년이 경과한 건축물로 이용자들도 불편하고 방수, 단열

에도 취약해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취약 계층이 이용하는 노후된 공공시설의 실내 환경 등 전반적인 시설을 개선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실내 쾌적도를 최적화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사업이 완료된 압록·연반보건진료소에는 국비 포함 총 2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돼 리모델링이 추진됐다.

특히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보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옥상 방수 및 창호 교체, 단열, LED등 교체 등 진행했다. 개선결과 주민의 이용 만족도 향상은 물론 에너지 비용 등 관리 효율성도 높아졌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시설 개선을 통해 불편한 사항들이 해결되고 실내 환경도 쾌적해졌다"며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관리 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곡성=한정길 기자

순천제일대, 산업전기응용부회 '최우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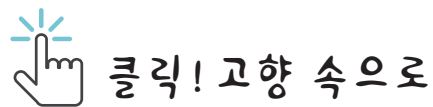
순천제일대 전기자동화와 학생들이 대학생작품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전문대학 공학분야 명품학과로서 이름을 날렸다.

순천제일대가 전기자동화와 2학년에 재학 중인 김민중, 신명식, 송재량, 정경수 학생이 최근 여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1회 산업전기응용부회 대학생작품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김민중 학생팀은 크레인의 흔들림을 제어하는 아이디어인 'PWM을 이용한 크레인 관상기의 기동제어 연구'를 출품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학생작품경진대회는 최근 여수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전기학회 제53회 하계학술대회' 프로그램의 하나로 진행됐다. 대한전기학회는 전국 대학 전기계열학과 대학생들의 학술 동기를 부여하고 창의성과 실무능력, 팀워크 능력을 보유한 엔지니어 육성을 위해 매년 하계 및 추계 학술회마다 개최하고 있다.

학생 대표 김민중 학생은 "경진대회를 준비하면서 학술들과 친해짐은 물론 현장과 산업기술의 트렌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잘 이끌어주시는 변황우 학과장님과 고영진 교수님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권동현 기자



광양백운라이온스클럽, 주거환경 개선 활동

광양백운라이온스클럽이 최근 주거환경 위기에 처해 있는 1인가구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집수리 사업을 진행했다.

해당가구는 붕괴 위험이 있는 주택방 한 칸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건강과 경제적 문제 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였다.

참가자들은 페인트칠, 도배, 장판

작업 등의 인력을 지원하고 침구류와 가구, 싱크대와 냉장고 등 300여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후원했다.

박정근 회장은 "대상자분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히 지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권동현 기자



보성교육청, '토닥토닥 문화나눔' 콘서트

보성교육지원청이 지난 11일부터 초·중·고 17개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토닥토닥 문화나눔 콘서트'를 운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작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클래식, 국악, 대중음악 등을 직접 학교로 찾아가

진행했다.

보성교육지원청 전희 교육장은 "농어촌 지역의 작은학교 학생들은 문화·예술적 측면에서 다양한 경험의 기회가 부족하다"며 "작은학교간 연계성을 통해 작은학교의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해 교육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보성=백중두 기자



구례청소년상담센터, 성폭력 예방교육

구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구례교육지원청, 구례경찰서, 전남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함께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을 초·중·고 1,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온라인상에서 지켜야 할 디지털 예절, 성인식, 온라인 그루밍, 사이버 스토킹 등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의 대처 방법을 실질적으로 직

용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박선숙 센터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은 나와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며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청소년인권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자살예방교육, 인터넷 중독예방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구례=손석봉 기자